



F I D 總 會 와 韓 國

趙 慶 哲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事務總長)

70年代는 情報化時代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情報化라는 文字에 그리 銳敏한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政府와 產業界의 實體 事情이다.

한발자국 海外로 나가보면 先進國家이건 中進, 後進 國家이건 間에 情報交流와 處理問題에 關하여서는 無數한 出版物이 刊行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意欲的으로 科學技術뿐만 아니라 一般行政上의 有効的인 施行을 爲한 資料處理와 人事問題까지도 本格的으로 情報處理의 方法으로서 研究하고 있는 것이다. 先進國은 先進國나름대로 生産되는 産業技術 全般에 亙하는 情報과 研究機關에서 나오는 研究結果와의 實質的인 相互應性은 그 누구보담도 早期發見하여 自己企業體에서 利用을 하고 또한 莫大한 生産品과 資料處理 및 雇傭人과의 有機的이고도 經濟的인 經營을 爲한 情報處理問題가 提起되어 있고 中進, 後進國家로서는 先進國家에서 連日 續出되는 特許, 生産技術 및 研究成果報告等의 情報接取와 早速消化를 期함으로써 來日의 創意性을 키울 수 있음은 勿論, 이것의 吸收 消化의 速度如何가 곧 先進國과의 文化, 工業力, 나아가서는 國民總力의 格差를 줄이는데 自己의 나라가 他國에 比해서 어느 程度 得勢를 할 수가 있는가의 基準이 되는 것이다. 이런 重要性을 認識한 世界 各國은 情報事業을 專擔하는 機關을 設置하였고 活潑한 活動을 하고 있는바 우리 韓國도 時代의 趨勢에 呼應하여 科學技術情報센터가 1962년에 UNESCO 韓國委員會 KORSTIC 部로서 發足を 보게 되었다. 우리들의 意欲과는 反對로 技術情報活動에 對한 一般企業體의 認識不足으로 加上 財政的 뒷받침도 充足치 못하여 機能上 큰 效果를 못 發揮하여 왔었는데 多幸히도 60年度 後半期에 들어서서는 政府側의 積極的인 援助德分으로 漸次로 活動範圍와 機構擴張이 繼續되었고 特히 1969년에는 洪陵에 超近代的인 情報센터가 垆地 萬坪과 建坪 1,600坪의 巨大한 規模로 建立케 되었다. 이때 이루어진 機構再編成은 곧 情報活動에도 反映이 되어 名實共히 世界一流의 科學技術情報센터가 되었다.

이렇게 世界 어느 나라에 比해도 遜色없는 堂堂한 新情報센터가 昨年에 建立되기에는 當 센터의 理事長인 李厚洛氏와 그의 側近者 諸位의 功이 컸음을 特記하여

야 한다. 우리 情報센터는 海外의 數千種에 達하는 科學과 産業의 學術技術誌를 繼續的으로 蒐集하고 있고 歐美 및 日本의 特許情報와 工業規格誌 및 生産品「캐틸로그」등도 蒐集하고 있다. 이것을 活用하여 國內研究機關과 産業企業體, 政府要所等等이 隨時로 必要로 하는 入手困難의 最新科學技術 또는 生産과 特許에 關한 文獻 其外 情報를 調査 提供해준대 一般 圖書館活動과는 根本的으로 機能이 다르며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圖書館的인 科學技術情報誌提供에 있는 것이 아니고 保有하고 있는 各分野 專門家를 動員하여 情報活用の 能動的 媒介體의 役割을 하는데 있다. 이러한 活躍의 보다더 効果的이고 國際間的 有機的인 協助를 爲한 國際機構가 存在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FID(Federat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이란 것이다. 이 機構의 設立 歷史는 오래다. 1895년에 國際書誌目錄作成等의 目的을 爲해 國際書誌協會로 出發하여 1938년에 FID 即 國際도큐멘테이션聯盟으로 되었다. 韓國은 現在까지 많은 數의 國際機構에 國家會員國으로 加入이 되었다 하지만 北傀의 會員國 加入活動에 比해서 너무나 消極的이었던 例가 하나 들이 아니다.

이 FID의 境遇에도 北傀는 이미 第33次 總會 때 (1964年) 加盟國이 되어서 情報化時代에 있어서의 FID 活用的 先鞭을 쳤고 韓國은 겨우 이번 第35次 總會 때 加入되도록 運動을 하게 했으니 벌써 加盟國으로서의 北傀와 同系列의 조聯 및 그 衛星國家들의 妨害工作이 甚할 것을 豫測 암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總會는 2년에 한번式 開催, 實力있는 나라끼리 競爭申請하여 選出된 나라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南美 알젠티나의 首都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9月14일부터 24日까지 10日間의 長會期總會가 열렸다. 또 하나의 기탄할 일은 이런 總會參加의 目的뿐만 아니라 韓國의 會員國 加入運動도 하여야 하는 使命을 띠우고 出發하고자 旅券申請을 充分한 時日을 두고 하였는데도 不拘하고 世界的으로 有名(?)한 그 複雜多難한 韓國의 旅券手續節次의 苦行으로 그것도 入國「비자」는 東京서 받아야 한다는 過程을 거쳐서 겨우 15日에야 出發케 되었다. 多幸히 本會議은 17日 午前 9時에 始作한다는데 「젯트」機로 달리고 달려서 同

17日午前3時에야 겨우 到着을 하게 되었다. 2日間 나라의 일을 爲하여 한잠도 못자고 強行軍한 끝에 곧 본會議場으로 달려가야만 하게 해준 旅券手續에 關聯된 政府 部處官僚들에게 나는 感謝하여야 오를지는 第三者가 判斷해줄 것이다. 推測했든대로 北傀의 韓國加入申請에 對해서는 猛烈한 妨害工作이 되어 있었고 소 聯代表의 先導로 會議始作때부터 韓國加入問題만 갖고 야단이였다. 이에 對해서 附和雷同해야 하는 衛星國家들의 立場도 看守해가며 總會議長(카나다出身)과 日本代表의 好意로 美國代表의 支援射擊도 얻어 秘密投票을 하자는 소 聯의 提議를 20對7로 물리치고 公開投票로 할것을 誘導한 끝에 마침내 韓國은 20對5(棄權 2)로서 加入承認이 되었다. 이 報告結果는 簡單하게 보이지만 지난 4월에 있었던 FID 亞細亞太平洋地域國會議 때부터 始作된 加入運動工作이 여러가지 複雜한 裏面運動을 거쳐서 成功했다는 點을 附記해 둔다.

『第37次(1974年度)總會는 韓國 서울서 開催하기를 申請한다』고 그 다음날 會議 堂堂히 會員國 代表로서 總會開催國으로서의 力量도 있다는 것을 誇示할 수 있든 나는 大韓民國도 이제 이 水準까지 왔다는 感激의 瞬間을 「마이크」를 잡은 손안의 빗줄기에 느낄 수가 있었다. 더우기 氣分 좋았던 것은 代表國의 稱號 및 名辭表示가 韓國은 “Republic of Korea”로 쓰여져 있고 北傀는 “North Korea”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도 兩斷된 韓國의 全域代表 資格을 認定해 주는 FID 機構의 고마운 處事였다. 그 옛날의 大國이었던 中華民國은 그 代表가 「오브자버」資格으로 前列 會員國 「테이블」에 끼우지 못하고 내 뒷 座席에 앉아서 參觀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感慨無量하기도 했다 이번 總會의 主「테마」는 『利用者를 위한 情報傳達』이었다.

副題로서 情報化社會의 定義追求에도 熱意있는 討議와 研究發表가 있었다. 우선 情報化社會란 무엇이나? 이것에 對한 우리들의 見解와 解釋을 더듬어 보자.

정보화 사회란, 어떠한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사회 발전단계로 보아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은채로, 사람마다 제 나름대로의 이미지에 따라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오늘 날,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한개 낱말의 이해 방법은, 극히 다종 다양하여 그 다중성 다양성은 아직도 그런대로 흘러퍼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듯 다종 다양한 정보사회라고 하는 낱말의 이해는 몇 가지의 구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직하다. 그 구름을 통털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은, 매스·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더욱더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이른바 정보의 폭발시대에 놓여진 사회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이것을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구름이다.

제2는, 인류를 지배하는 요소로서, 물질, 에너지, 정보의 셋을 생각하고, 농업화 사회는 보다더 물질에 의존하고, 공업화 사회는 보다더 물질과 에너지에 의존하여 왔으나, 앞으로의 사회는 물질과 에너지에 정보가 덧붙여지도록 되리라고 예상하여 이것이 곧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구름이다.

제3은, W·W·로스토프(존슨 전 미국대통령의 경제고문)의 경제발전단계설을 밑바탕으로 해서, 고도대 중소비사회의 다음에 오는 사회는 고밀도 공업화 사회이고, 이와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정보의 역할을 크게 평가하고 여기서도 정보화 사회라는 구름이 이루어진다.

제4는, 제1차 산업혁명이 스팀엔진의 발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제2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컴퓨터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라는 구름이다.

끝으로, 제5의 구름은, 다니엘·벨(컬럼비아대학 사회학부 교수, 미국과학문예아카데미 서기2000년 위원회위원장)등이 제창한 포스트·인더스트리얼·소사이 어티(공업화 이후의 사회, 탈공업화 사회라고도 한다)의 개념을 베이스로 한 것으로, 물재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공업화 사회라고 부르고, 다양한 정보를 주체로 한 앞으로의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라는 낱말의 이해는, 사람에 따라 그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통으로 정보화 사회 라고 하는 말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보에 의한 영향이 심변에 가까운 문제로 일켜져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때문일 것이다.

情報의 概念

대체로 정보화 사회에 앞서, 정보라고 하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정보란 무엇인가, 새삼 다시 생각하면, 우리들은 정보란 낱말을 극히 애매한 뜻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인된 개념의 규정은 아니지만, 정보의 개념을 말할 때에 인용되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

정보의 개념에 대한 어원 그대로는 의외로 오래다. 예를 들면, 정서에도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남겨져 있다.

정보의 개념이 과학적으로 엄밀히 정의되고 정보의 량과 그 가치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기 비롯한 것은,

R·A·피셔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피셔는 정보량을 정량화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 후 N·위너, C·E·샤논의, 주로 통신과 제어에 대한 정보이론에 의해 말이 비롯됐다.

또한, 정보의 가치에 관해서는, A·왈드의 결정이론이 공학적 취급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실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개념적으로 규정해 보더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보다도, 정보를 유별함으로 해서 각각의 특성을 알고, 동시에 발생과 이용의 중점을 이해하고, 그로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학문·지식영역에 의한 분류, 이용에 의한 분류, 정보전달의 분류 등이 일반화 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라고 하는 낱말도 단일한 뜻을 지니지 않고, 그것이 문제로 하는 영역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 정해진다.

왜, 정보이론이라고 하는 정보에 관한 체계가 서 있으면서도, 이것이 공인된 개념규정으로 되지 않을가, 이것은 그 이론 자체가 수학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맷세이지의 내용으로는 되지만, 정보자체의 내용은 우리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뜻과는 관계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별다른 표현으로는, 정보구성단위의 송달이 확실하게 이행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며 이와 같은 단위의 선택만이 오로지 관심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정보를 공인된 개념으로서 자리잡게 하는 것의 어김 없는 하나는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의 의미를 전달하는 절일 것이다.

정보를 이상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을 경우, 정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제일 첫째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형식을 갖추고, 둘째로는 들, 또는 그 이상의 단독의 뜻을 가진 기호의 조직적 통일체라고 규정된다.

그리하여,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가, 나는 먼저 말한 다섯 가지 생각 방법 중에서 제5의 생각 방법을 중심으로 제1에서 제4의 생각 방법을 포괄한 것을 정보화 사회로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의 설치 대수가 많아지면,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近百編이나 되는 論文이 各分科別로 發表되고 討議가 되는 한편 情報資料取扱에 必要로 하는 電子計算機 復寫機, 出版機 및 出版物, 마이크로 필름化에 必要로 하는 機具와 寫眞裝備等等이 展示되어 있었다. 이런 國際會議專用于로 만드려져 있는 建物の 4層까지의 各室과 大小 講堂等 및 地下室까지 使用되었으며 參加人員이 3百餘名에다가 同伴한 家族들까지 合한 큰 모임을 「부에노스 아이레스」市는 밤낮으로 待接하기가 바빴다.

FID 會員國家로서의 韓國은 어떻게 앞으로 FID 를 活用하느냐의 問題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課題가 될 것이다. 1년에 4百弗이나 내는 會費의 미천을 뽑아내야 하는 것도 勿論이거와 그것보담도 우리 나라의 工業力의 質的 向上에 寄與될 수 있는 情報交流의 効果的인 媒介體로서 또한 多樣的으로 施行되는 情報技術專門家養成訓練과 그 方法研究의 指導機構로서의 FID를 充分히 活用하는데 우리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는 銳意努力할 것이라는 點을 다짐해 둔다.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限 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賣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부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應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을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賣下가 願해서 아직도 費事와 關聯을 맞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을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的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평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